

# ‘박연차 쓰나미’에 4월 정국 요동칠 듯

## 사정 정치권 강타... 재보선 변수로 내달 임시국회 일정마저 불투명

여의도 정가에 몰아치고 있는 ‘박연차 로비’ 폭풍으로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4월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일단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전격 구속된데 이어 한나라당의 차세대 주자 중 한 명인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무대였던 부산·경남(PK) 출신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친노(親盧) 386 의원들 여러 명의 이름이 ‘박연차 명단’에 회자되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현역 의원 추가 소환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국의 최대 승부처인 4·29 재보선 구도도 박연차 로비 폭풍의 진로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386’ 의원 등이 거론되자 한때 수사 결과가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중진인 박진 의원의 연루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 전체에 충격과 반지면서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결과는 재보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 파행 우려 = 박연차 로비 파동은 4월 임시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이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를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정규직입법 등을 처리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박연차 로비 파동과 정 전 장관의 공천 문제 등으로 민주당이 과거처럼 실력행사에 나설 동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파고 든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공안탄압’ 종식과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를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버리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박연차 수사,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공안탄압’을 따지는데 당력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박연차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해 4월 임시국회는 수사 방향에 연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대표, 경찰서 간 까닭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실상을 접거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YTN 노종현 노조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김기용(왼쪽) 남대문경찰서장과 함께 2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연남뉴스

이와 함께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돼 정국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흔들리는 재보선 정국 = ‘박연차 로비’ 파문은 단기적으로 4·29 재보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경계 살리기’,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사 결과는 재보선 구도를 송두리째 뒤엎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박연차 로비 파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시절 핵심 인사들이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느긋한 표정이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29 재보선 공천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 전 장관의 갈등이 좀처럼 풀려나지 않고 있다.

정 대표 등 지도부도 ‘전주 덕진 공천불가’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 전 장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정 전 장관은 지난 27일 전 주를 거쳐 29일에는 광주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마이웨이’ 행보에 들어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부인 민혜경 여사 및 몇몇 지인들과 함께 비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묘지를 방문, 30분가량 참배를 하고 묘역을 둘러본 뒤 선거 사무실이 마련된 전북 전주로 돌아갔다.

그는 묘지 방문록에 “광주 5월 정치는 세계 속에 빛날 것입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고 묘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정 전 장관의 이번 묘지 참배는 자신의 덕진 공천에 대한 당 지도부의

## 정동영 ‘외길수순’ ... 丁-鄭 제갈길 가나

### 전주 낙향, 5·18묘지 참배 무소속 배수진 행보 ... 2차회동 안갯속

부정적인 입장에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행보로 읽힌다.

이같은 정 전 장관의 행보를 놓고 일부에선 양측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장관 측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무소속 출마는 사실 상 정치생명을 건 싸움이기 때문이다.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처 뿐인 영광에 머물수 있기에 더욱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더욱이 당 원로들과 지도부가 이같은 정 전 장관의 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 측 핵심 인사는 “합법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당의 고민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 욕심에만 치우친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덕진 출마 불가 입장에

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다. 정대표 측이 적 전분열을 조기에 끝내고 ‘신공안정국’에 단일대오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정 전 장관이 백의중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 전 장관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전 장관 측 최규식 의원은 “지도부가 MB 정권과 싸워야지 왜 정 전 장관과 싸워야 하느냐”며 “이럴 때일수록 뒷섹정치를 해서 하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뽀새정치를 해서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급우초로 예상됐던 양자간 2차 회동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다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무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재오 10개월만에 귀국 여권 역학구도 변화 올까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지난 28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여권의 역학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5월26일 미국으로 향했던 이전 의원은 10개월여 만에 고국을 찾았다. 이 전 의원은 귀국 전날인 27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같은 날 오후 일본 도쿄에 도착했으며, 도쿄에서 1박한 뒤 28일 밤 10시20분께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측근인 진수희 의원이 밝혔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거창한 귀국행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비롯한 일부 극소수 인사 외에 누구에게도 귀국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극비 귀국’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이처럼 조용한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이 그를 거만히

높아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여당 중진에게까지 미치면서 여권 내 세력판도의 변화 조짐이 더욱 커졌다.

일단 박연차 리스트에는 부산과 경남(PK) 지역 출신의 정치인 대부분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많아 친박계의 정치적 타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의원이 귀국한 만큼 힘이 더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이 전 의원의 ‘역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盧 전 대통령 심기 불편?

지인 아들 결혼식 불참

‘박연차 리스트’가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일 참석할 예정이었던 지인의 결혼식장에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분산리 봉하마을을 다녀와 진디공장에서 친구인 이재우 진영농협 조합장의 아들 성호(35·전 청와대 비서관) 씨의 전통혼례에 참석

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었다.

당초 작성된 봉하마을 전통혼례 순서에도 대례 가운데 고전본 낭독에 이어 ‘갈빈이 말씀(VIP)’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신랑, 신부 및 하객들을 위해 간단한 인사말을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참석을 검토했는데 최근 (박연차 리스트 등)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어제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4,928,290,462	I. 유 동 부 채	4,863,280,569
(1) 당 좌 자 산	4,907,927,762	1. 매 입 부 채	305,916,40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45,686,732	2. 매 입 지 채	1,053,276,536
2. 단기금융자산	500,000,000	3. 선 수 채	271,094,309
3. 매출채권	3,154,421,294	4. 선 수 수 수 채	22,954,160
4. 대 손 채 권	44,490,055	5. 미 지 수 채	368,009,334
5. 선 수 채 권	2,690,514	6. 선 수 기 채	9,697,572
6. 선 수 수 채	6,882,903	7. 유 동 선 채	165,344,492
7. 선 수 수 채	75,283,611	8. 유 동 선 채	2,666,640,000
8. 선 수 수 채	3,449,226	9. 미 지 지 채	347,760
9. 선 수 수 채	189,003,537		
II. 비 유 동 자 산	20,362,700	II. 비 유 동 부 채	1,420,092,390
1. 지 지 채	20,362,700	1. 퇴 퇴 채	171,112,530
II. 비 유 동 자 산	20,994,307,533		
(1) 무 가 능 채 권	359,393,419	2. 연 버 채	100,923,250
1. 매 도 가 능 채 권	190,000,000	3. 장 기 채	1,111,180,000
2. 지 지 채	206,361,021	4. 이 연 버 채	36,876,610
(2) 유 형 자 산	11,987,730,357		
1. 토 지	1,882,953,722	부 채 총 계	6,283,372,959
2. 구 조	49,465,900		
3. 감 가 상 각 누 계	12,284,800	자 본 총 계	10,000,000,000
4. 방 송 기 계	4,145,621,763	I. 자 본	10,000,000,000
5. 감 가 상 각 누 계	3,373,803,529	I. 보 존 자 본	10,000,000,000
6. 전 송 선 로 설 비	14,084,883,864		
7. 감 가 상 각 누 계	298,272,011	II. 이 익 잉 여	9,639,225,036
8. 감 가 상 각 누 계	153,094,701	1. 이 익 잉 여	190,000,000
9. 감 가 상 각 누 계	740,618,247	미 처 분 이 익 잉 여	9,449,225,036
10. 감 가 상 각 누 계	440,665,154	(보통회계)	
11. 감 가 상 각 누 계	1,599,894,491	당기: 7,789,759,639	
12. 감 가 상 각 누 계	920,570,091	전기: 1,023,333,879(원)	
13. 감 가 상 각 누 계	3,313,501,524		
14. 감 가 상 각 누 계	1,325,480,293		
(3) 무 형 자 산	8,811,817,736		
1. 영 타 무 형 자 산	8,115,615,124		
2. 기 타 무 형 자 산	196,202,612		
(4) 기 타 무 형 자 산	358,398,419		
자 본 총 계	25,922,597,995	부 채와 자 본 총 계	25,922,597,995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100,782,279,416	I. 유 동 부 채	46,152,454,482
(1) 당 좌 자 산	97,395,732,410	1. 매 입 부 채	17,591,605,50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6,464,746,584	2. 단 기 차 입 채	4,160,000,000
2. 단기금융자산	15,000,000,000	3. 미 지 채	11,560,158,602
3. 매 도 가 능 채 권	2,420,260,000	4. 공 시 선 수 채	9,376,633,002
4. 공 사 미 수 채	13,860,804,567	5. 선 수 채 권	1,022,610,586
5. 단 기 대 여 채	37,100,000,000	6. 예 수 채 권	61,267,980
6. 미 수 수 채	7,255,246,630	7. 미 지 급 비	938,013
7. 미 수 수 채	1,422,497,487	8. 미 지 급 비	2,399,340,796
8. 선 수 채	3,361,536,780	II. 비 유 동 부 채	3,618,182,281
9. 선 수 채	510,643,392	1. 장 기 보 증 채	579,800,000
(2) 제 고 자 산	3,386,547,006	2. 퇴 퇴 채	3,064,884,331
1. 음	2,972,871,080	3. 국 민 연 결 전 환 채	26,502,100
2. 공 사 원 재 료	13,876,946	부 채 총 계	49,770,636,713
II. 비 유 동 자 산	4,023,012,954		
(1) 무 가 능 채 권	8,918,226,345	자 본 총 계	18,080,090,000
1. 감 가 상 각 누 계	8,000,000	I. 자 본	18,080,090,000
2. 매 도 가 능 채 권	8,105,980,345	II. 자 본 조 정	3,637,780,000
3. 보 증 채 권	666,386,000	1. 사 기 주 식	3,637,780,000
4. 기 타 의 무 자 산	137,860,000	III. 이 익 잉 여	49,592,345,657
(2) 유 형 자 산	4,060,234,507	1. 기 업 합 리 화 저 퇴	81,438,863
1. 토 지	1,429,117,660	2. 임 의 적 퇴	3,260,000,000
2. 건 물	3,403,983,874	3. 기 업 발전 저 퇴	2,0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953,115,507	4. 미 처 분 이 익 잉 여	44,280,906,794
3. 차 량 운 반 구	509,927,629	당기: 11,274,208,769	
차량감가상각누계액	3,370,976,000	전기: 8,214,444,441	
4. 기 타 의 유 형 자 산	2,521,377,348		
기타유형자산상각누계액	2,490,090,587		
(3) 무 형 자 산	54,552,102		
1. 영 타 무 형 자 산	54,552,102		
자 본 총 계	113,805,292,370	부 채와 자 본 총 계	113,805,292,370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7,992,626,523	I. 유 동 부 채	7,743,889,901
(1) 당 좌 자 산	4,185,814,488	1. 매 입 부 채	2,604,116,527
현금및현금성자산	205,320,082	단 기 차 입 채	4,000,000,000
매 출 채 권	4,038,812,614	미 지 수 채	560,205,284
대 손 채 권	199,145,919	미 지 수 채	757,500
선 수 채 권	68,008,207	미 지 수 채	448,130
선 수 채 권	951,642	미 지 수 채	573,456,900
단 기 대 여 채	11,700,000	부 가 가치 세 예 수 채	114,906,590
유형자산연법인채자산	66,343,062	II. 비 유 동 부 채	104,351,271
고 고 자 산	3,808,812,036	퇴 퇴 채	307,436,270
계 정	2,754,076,820	퇴 퇴 채	2,203,084,999
계 정	282,349,816	부 채 총 계	7,848,241,172
상 품 채 권	284,363,647		
상 품 채 권	282,862,286	I. 자 본	1,000,000,000
보 조 채 권	441,686,598	II. 보 존 자 본	1,000,000,000
보 조 채 권	411,739,085	III. 이 익 잉 여	-
저 조 채 권	30,297,557	IV. 이 익 잉 여	5,540,660,089
II. 비 유 동 자 산	7,296,274,738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796,338,252
(1) 무 가 능 채 권	215,815,017	당 기 수 익 잉 여	2,744,321,837
1. 감 가 상 각 누 계	213,015,017	자 본 총 계	7,540,660,089
2. 유 형 자 산	7,048,347,827		
3. 무 형 자 산	2,095,436,494		
가 상 각 누 계	2,724,442,272		
가 상 각 누 계	2,724,442,272		
가 상 각 누 계	144,808,200		
가 상 각 누 계	210,380,122		
가 상 각 누 계	3,540,644,788		
가 상 각 누 계	4,418,374,724		
가 상 각 누 계	21,137,826,691		
가 상 각 누 계	29,196,600		
가 상 각 누 계	19,539,431		
가 상 각 누 계	69,176,296		
가 상 각 누 계	41,474,974		
가 상 각 누 계	67,800,000		
가 상 각 누 계	67,850,000		
가 상 각 누 계	54,500,000		
가 상 각 누 계	59,062,499		
(3) 무 형 자 산	-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32,111,894		
보 증 채 권	24,000,000		
유형자산연법인채자산	108,111,894		
자 본 총 계	15,388,901,281	부 채와 자 본 총 계	15,388,901,281